

게임이론을 통해 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중심으로*

박 홍 서**

— 目 次 —

- I. 서론
- II. 게임이론과 중국외교
- III. 천안함 · 연평도 사건과 중국의 외교게임
-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게임이론을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국제정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 현상이다. 국제정치학계는 주로 미국주도의 현 국제질서속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면서 중국의 대외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중 상당수는 다양한 국제정치 이론에 기반해 중국의 대외행태를 분석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적 시각이 중국의 행태를 국가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면, 자유주의적 시각은 국제제도 혹은 보편규범의 확산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한다. 한편, 구성주의적 시각이 중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핵심적 설명변인으로 상정한다면, 마르크시즘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대외행태를 분석한다.¹⁾

그러나 이들 연구에 비해 게임이론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외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다.²⁾ 사실, 게임이론은 상술한 국제정치 이론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통일연구원 이기현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동덕여자대학교

1) '중국의 부상'을 각 국제정치이론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위협'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 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2008).

2) 게임이론을 통한 중국외교 연구는 Catherine C. Langlois and Jean-Pierre P. Langlois, 「Rationality in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임이론은 경험적 내용이 무엇이든 그러한 사실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 중국의 외교행태를 분석하든 게임이론은 그러한 분석과정을 보다 명료하게 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게임이론을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시 나타난 중국의 외교행태를 분석한다. 2장에서는 게임이론을 이용해 중국외교를 분석하는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설명하며, 3장에서는 구체적인 게임이론을 통해 중국의 대미관계, 대북한관계, 그리고 대한국관계를 분석한다.

II. 게임이론과 중국외교

현대 게임이론은 폰노이만(John Von Neumann)이 1928년 발표한 논문 “실내게임이론(Theory of Parlor games)”에서 2인 제로섬 게임에서 최적전략이 항상 존재함을 증명하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게임이론은 내쉬(John Nash)가 다자간 비제로섬 게임을 분석해냄으로써 이론적 진보를 이룬다. 사실, 폰노이만의 2인 제로섬 게임은 실제 현실을 명확히 설명해 내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현실에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는 보통 2인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가 많고, 또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비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내쉬는 다자간 비제로섬 게임을 분석하면서 모든 게임에는 상대방의 전략이 고정된 상태라면 나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균형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³⁾

게임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성(rational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의 목적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이론이 가정하는 합리성은 ‘합목적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⁴⁾

International Relations: A Game-Theoretic and Empirical Study of the U.S. -China Case, 『World Politics』, Vol. 48, No. 3 (Apr., 1996), pp. 358-390; 원동욱,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008), pp. 367-385; 원동욱, 「중국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간 에너지 협력게임」,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pp. 89-118 참조.

3) 폰노이만과 내쉬에 의한 게임이론의 발전에 대해서는 톰 지그프리트 지음, 이정국 옮김,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 (서울: 자음과 모음, 2010), 2-3장 참조.

4) 게임이론이 가정하는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Shaun P. hargreaves Heap and Yanis Varoufakis, 『Game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5), pp. 5-23; 정준표,

물론, 행위자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현실에선 명확한 목표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목표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정보 혹은 충분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⁵⁾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게임이론의 유용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고 수학이 틀렸다”고 단정 내리는 것과 유사하다. 게임이론은 경험적 이론이 아니라 분석 논리이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게임이론을 통해 경험적 현상을 적실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들이 추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은 경험적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형식적 분석에 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영장류의 팔다리가 3개라면 인간의 팔다리도 3개다”라는 진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경험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 각각이 추구하려는 ‘독특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그들의 심리나 직면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⁷⁾

사실, 국제정치학에서 신현실주의 및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비판이 이와 유사한 논거를 갖는다. 구성주의 이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웬트(Alexander Wendt)에 따르면, 주류이론은 개별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동일하다는 대전제로부터 국가들의 행태를 분석한다.⁸⁾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개별 국가의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초래되는 국가간 정체성의 차이를 간과한다. 더욱이 ‘생존’이 개별 국가들의 최고 목표라는 대전제가 타당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게임이론을 통해 중국의 대외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국가목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원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현재 중국의 최고 국가목표가 ‘부민강국(富民強國)’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97년 15차 당대회 이후 중국지도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언급을 수십 차례 강조해왔다는 사실은 부민강국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한다.⁹⁾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2003, pp. 415-439참조.

5)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 Transformation』, 9th edition (Wadsworth/Thomson, 2004), pp. 76-80.

6) 톰 지그프리트,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 pp. 105-107.

7)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서울: 한울, 1995), 34쪽.

8)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pp. 391-425.

9) 이동률, 「중국의 강대국화 외교전략과 과제」, 『국방연구』, 제 53권 제 3호, 2010, pp. 2-3.

사실, 부민강국에 대한 의지는 기타 국가들 역시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국만의 독특한 목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부민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국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대전략은 자국의 능력과 대외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들을 연결시켜 핵심 국가 목표를 이루려는 중심논리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와 같다면, 중국이 현재 내세우는 ‘화평굴기(和平發展)’와 ‘유소작위(有所作為)’ 전략은 주목할 만한 중국의 대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화평굴기 개념은 2003년 보아오 포럼에서 정뵈젠(鄭必堅) 중앙당교 부교장이 언급한 개념으로 중국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세기 초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며, 타 국가와의 긴밀한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다.¹¹⁾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소작위 개념은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주문한다. 미국의 ‘네오콘’과 유사한 현실주의적 대외관을 보이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이 자국의 급속한 성장에 부합하는 지위와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보수주의 학자인 얀쉐통(閻學通)에 따르면, 강경한 주권수호 의지와 정책만이 타이완 문제와 같은 핵심적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중국의 국가대전략은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중심(一個中心)’인 경제건설이 여전히 최우선의 국가목표인 이상 주변 국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유소작위 보다는 화평굴기 전략이 중국의 대외행태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1월 개최된 중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정치영역에서부터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전면적 협력을 강조하였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¹³⁾ 그럼에도 이것이 타이완 문제와 같은 사활적 이해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대미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10) Avery Goldstein,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9.

11)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tember / October, 2005. 2004년 이후 ‘굴기’를 ‘발전’으로 대체한 ‘화평발전’ 개념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부상을 보다 유화적인 의미로 묘사하려는 중국지도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김예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2005, pp. 220-221.

12) 마크 레너드 지음, 장영희 옮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울: 돌베개, 2011), pp. 144-146;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 43-69.

13) 『中華人民共和國與美利堅合衆國聯合聲明』, 中國外交部, 2011年1月19日.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788163.htm> 보수주의 학자 얀쉐통도 안정적 대미관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pp. 158-160.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전체적 영역에서는 화평굴기 전략을 구사하되 타이완 문제와 같은 핵심문제에 있어서는 유소작위 전략을 구사하는 혼합전략을 선택하고 있다.¹⁴⁾

한반도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드러나는 대표적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 문제해결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이는 화평굴기 전략과 부합되는 행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 역시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전자가 자유주의적 정책목표라면, 후자는 현실주의적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2003년 2차 북핵위기부터 현재까지 관련국간 긴밀한 협조와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1993-94년 1차 북핵위기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화평굴기 전략이 실제로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 태도를 화평굴기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¹⁵⁾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전적으로 미국에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이익의 침해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유소작위적 행태 역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있어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⁶⁾ 특히, 역사적으로 '상이한 중국들'이 한반도 유사시 '순망치한'이란 공통된 논리에 입각해 대규모 군사개입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일관되고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에도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을 희망한다거나, 한미동맹 강화나 중국이 배제된 북미관계 개선을 우려하는 것, 그리고 1999년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이후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사실 등은 모두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낸다.¹⁷⁾

14) 「中國策2010之外交篇: 中國可以有更多國際担当, 大公報: 中國外交有所作為邁出實質步伐」, 『中國新聞網』, <http://www.chinanews.com/hb/news/2009/02-16/1564176.shtml> 행위자간 게임에서 균형점이 불확실한 경우 게임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전략들을 혼합해 최대의 효용을 추구한다. 톰 지그프리트,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 pp. 71-79.

15)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미간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는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 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3호, 2007, 77-97쪽 참조.

16)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環球時報』, 2010年11月30日.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1/1301638.html> 참조.

17) 임진왜란 이후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2006, pp. 163-182 참조. 중국의 대북 관계 강화와 남한에 대한 유인 전략은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이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1호, 2008, 299-317쪽 참조.

이러한 중국의 정책목표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명확히 투영되었다. 중국은 두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와 안정적 북중동맹 유지라는 두 가지 차원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중국의 위기관리 행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석논리를 제공해 준다.

Ⅲ.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중국의 외교게임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천안함 사건이 그 진상을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수준을 점진적으로 증폭시켰다면, 연평도 사건은 즉각적으로 남북한 간의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두 사건 모두 사태여하에 따라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미중관계 역시 파국으로 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 분쟁이 통제 불능 상황으로 악화된다면 화평굴기 전략의 심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남북한간 분쟁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극도로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이 두가지 부정적 시나리오의 차단을 위해 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게 된다.

1. 게임의 수 및 구조

남북미중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외교전의 핵심 행위자들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을 기본적인 게임 참여자라고 한다면, 그들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 역시 핵심 참여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간 게임은 다자게임인 4자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게임이 그 복잡함으로 인해 오히려 게임이론의 강점인 ‘간결성(simplicity)’을 훼손할 수 있다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남북미중의 4자게임은 총 12개(4×3)의 양자게임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중 양자게임의 특성상 반이 중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의 총수는 6개가 된다. 또한, 이들 게임중 중국이 참여하는 게임은 총 3개로 중미게임, 중북게임, 그리고 중한게임이 그것이다.

중국이 참여하는 3개의 양자게임은 그 특성과 그 중요도가 다르다. 우선, 중미간 양자게

임은 중북게임과 중한게임에 비해 대칭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국력'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미간 세력격차는 중국-남북한 간 세력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중북간 종합국력 격차는 심각한 비대칭성을 보이며, 중한간 격차도 중북관계에 비해서는 작으나 중미관계와 달리 강대국-약소국간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이들 3가지 게임중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게임은 중미게임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평화적인 대외환경이 필수적이라 할 때, 슈퍼 파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하는가의 문제는 중국외교의 핵심 영역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미게임이 핵확산, 금융위기, 테러리즘, 기후환경, 그리고 인권문제 등 국제적 이슈를 포괄한다면, 중국과 남북한 게임은 보다 지역적 차원의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남북한 게임은 중미게임의 하부게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사실,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남한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중미게임과 중국의 대남북한 게임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중미게임: 죄수의 딜레마에서 상호협력

중미간 세력격차가 대칭적이고 양자관계에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미 간관계가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의 효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현재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 대미관계 구축이 절실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차단해야 할 합리적 동인을 갖는다. '화평굴기'는 전자를 위한 합리적 전략이며, '유소작위'는 후자를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대중관계는 협력적 요인과 갈등적 요인이 공존한다. 국제정치사에 있어 패권국의 쇠퇴가 일반적으로 과잉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다면, 미국로서는 차상위 강대국인 중국을 유인해 국제문제 해결 및 유지비용을 분담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인전략은 결코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¹⁹⁾

18) 중국 사회과학원은 1996년부터 영토, 인구, 군사, 경제 등 64개의 지표를 통해 '종합국력'을 계량화하였다. 사회과학원은 2009년 발표한 종합국력 순위에서 중국을 세계 7위로 자체 평가했으나, 같은해 한국에서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력 평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은 2위로 평가되고 있다. 마크 레너드,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p. 137; 『Yellow book ranks China 7th in overall strength』, 『China daily』, December 25, 2009. http://www.chinadaily.com.cn/world/2009-12/25/content_9228213.htm; 『미(美) 국방·경제·교육 등 7개부문 1위 중(中) 정치·문화력 1위... 러, 12위 추락』, 『조선일보』, 2009. 8.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15/2009081500045.html

19) 2005년 9월 미국무부 차관 줄릭이 중국을 미국의 이익상관자(stake-holder)로 지칭한 것은 중국에 대

죄수의 딜레마는 격리된 두명의 범죄 용의자에게 각각 자백을 강요할 때 나타나는 상황을 묘사한다. 만약 각각의 용의자가 “다른 용의자는 침묵(협력)하는데 내가 먼저 자백(배반)하면 너는 석방되고 상대방은 종신형에 처해질 거야”란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 행위자는 최악의 상황(내가 침묵하고 상대가 자백)을 피하기 위해 자백하게 된다.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중미게임이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의 구조를 갖는다면, 결국 중미 양국은 협력이 아니라 상호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중미게임은 상호배반이 아니라 상호협력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두 용의자 격리’ 가정이 실제 국제정치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미 양국은 격리되어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전략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이론이 가정하듯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국가들은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음번 게임에서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것이다.²⁰⁾

이와 같다면, 현재 중미게임은 전반적 영역에서 그림 1에서 보여지듯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상호배반(IV. 내쉬균형)이 아니라 상호 협력(I. 파레토 최적)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중미게임도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중미 양국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협력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과 동맹관계로 얽혀 있는 중국과 미국으로서는 남북한 간 확전은 곧 자국의 분쟁연루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호간 군사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미 양국은 실제로 이러한 협력의지를 2010년 5월 24-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략경제회담에서 명확히 표출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지는 5월 20일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남북한간 분쟁 차단에 중미 양국이 강력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조사발표에 동의하고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의 위기심화를 바라지 않는 것

한 미국의 포섭전략이 숨겨져 있다.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 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반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해서는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이론적인 측면에서, 패권국의 쇠퇴와 대응에 대해서는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56-197 참조.

20)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상호보복(tit-for-tat) 전략을 통해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은 로버트 액셀로드 지음,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티포탯 전략』, (서울: 시스템아, 2009), pp. 28-44 참조.

<그림 1> 중미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

		미국	
		협력	배반
중국	협력	I. **현상황** 남북한에 대한 자제압력 (파레토 최적)	II. 중국 묵인하 미국의 대북강경책
	배반	III. 중국의지지 하 북한의 강압외교 지속	IV. 북중 vs 한미 갈등 및 분쟁 (내쉬균형)

* 중국의 선호순위: III> I> IV> II
 ** 미국의 선호순위: II> I> IV> III

은 미중관계의 ‘카르텔’ 구조가 그만큼 공고하다는 것을 암시한다.²¹⁾

한편, 중미간 협력의지는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둘러싸고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천안함 사건에 비해 공격의 주체가 명확하고 그로인해 대규모 확전이 우려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미간 행보는 그만큼 신속하였다. 사건 당일 베이징에서 열린 보즈워스-우다웨이 회담에서 양측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very undesirable)”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북한 모두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였다. 또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26일 각각 중국주재 남북한 대사들과 면담하고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주문하였다. 다이빙귀 국무위원 역시 11월 27일과 12월 9일 각각 남북한을 방문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였다.²²⁾

미국 역시 12월 20일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스티븐스 주한대사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군들이 참관해 일종의 ‘인계철선’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대북강경책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상술한 2011년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5월 10일 양국간 3차 전략경제 회담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²³⁾

21) 미중 전략경제회담 내용은 「第二輪中美戰略與經濟對話在北京舉行」, 『人民日報』, 2010년 5월 2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 종료 ‘한반도 안정 유지’ 의견 일치」, 『프레시안』, 2010년 5월 26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526021526&Section=05 참조.
 22) 「U.S. says China sees North Korean shelling as ‘undesirable」, 『Reuters』, Nov 23, 2010; 「楊浩旒闡述中方在當前朝鮮半島局勢問題上的立場」, 『人民日報』, 2010년 11월 27일; 「朝鮮領導人金正日會見戴秉國」, 『人民日報』, 2010년 12월 10일.

물론,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중 양국의 공감대가 곧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면적’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미중간 협조체제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호협력의 상황은 어느 한 국가의 배반으로 언제든지 내쉬균형(상호배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은 상호협력속에서도 상대방의 배반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7월 9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과 7월 24일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의장성명 도출과정은 이러한 정황을 드러낸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이 “공격(attck)”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동의하였으나, 공격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려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관철시켰던 것이다.²⁴⁾ 더군다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미 양국이 2010년 7월말과 11월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은 “황해 및 중국 인근연해에서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문제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도를 차단하려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중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연루설을 수용하지 않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던 사실은 미중간 상호협력적 상황이 언제든지 상호배반적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중복게임: ‘응석받이’ 게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중미게임의 종속변인이라면, 중복관계는 중미관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복관계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약소국간의 비대칭 동맹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맹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연루-방기’ 사이의 동맹딜레마가 존재한다. 즉, 상대방으로 인한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할수록 중복동맹은

23) Chico Harlan, 「S. Korean president faces conflicting pressures as he toughens N. Korea respons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8, 2010.

24) 「안보리 ‘북한’ 빠진 의장성명 채택」, 『경향신문』, 2010. 7. 10. 1면; 「[아세안안보포럼] 압박하는 한·미·일-반발하는 북·중 ‘신냉전 기류」, 『경향신문』, 2010. 7. 24. 4면

25) 중국정부의 공식적 비판은 「2010年7月8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714888.htm>; 「外交部發言人洪磊答記者問」, 中國外交部, 2010年11月26日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772435.htm> 참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은 「중국, 미국 보란듯이... 1달새 8번 군사훈련 공개」, 『한겨레신문』, 2010. 8. 5;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 『서울신문』, 2010. 11. 30 참조. 한미군사훈련을 통한 미국의 중국 압박 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專家：應對美韓軍演 切忌隨他人步伐起舞」, 『環球時報』, 2010. 8. 18 참조. <http://www.huanqiu.com/www/191/2010-08/1025245.html>

그만큼 균열될 수밖에 없으며 그 역관계도 성립된다.²⁶⁾

주지하듯, 중국은 한국전쟁시기 대규모 참전을 통해 북한과 ‘혈맹’관계를 형성하고, 1961년 7월 11일 중조우호조약을 체결해 군사동맹관계를 법제화하였다. 동 조약은 타방이 군사 침공을 당할시 나머지 국가는 “지체없는” 군사원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동맹딜레마를 심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 화평굴기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강압외교를 지지할 수 없다. 북한의 강압외교가 남북한간 혹은 북미간 분쟁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의 원치 않는 분쟁연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북동맹은 최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발생가능한 미국의 배반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강압외교를 단호히 무력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강압외교로 인한 한반도 분쟁을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북중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갖을 수밖에 없다.²⁷⁾ 이와 반대로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는 중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 촉발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오직 중국으로부터의 방기가능성만 차단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북중간 동맹딜레마 관계의 비대칭성은 동맹 약소국인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북간 게임은 그림 2와 같은 비대칭적 효용구조를 갖는다. 중국의 효용구조는 자국의 지시대로 북한이 협력하는 상황(III)이 가장 좋으며, 다음으로 북중 상호 협력(I), 그 다음으로 북중 상호간 배반(IV)이며, 최악의 상황은 북한의 강압외교에 끌려가 결국 미국과의 분쟁가능성이 증폭되는 상황(II)이다. 한편, 북한의 효용구조는 최선(II)과 차선(I)이 중국의 그것에 역관계로 대칭적이지만, 최악(IV)과 차악(III) 상황은 중국과 다르다. 중국으로서는 북중동맹의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과의 분쟁을 차단하려할 합리적 동인이 있지만,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북중동맹의 균열은 곧 국가생존의 치명적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게임에서 중국의 효용순위는 최수의 딜레마와 동일하고, 반면 북한의 효용순위는 겁쟁이(chicken) 게임과 동일하다.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이러한 게임을 ‘허세(bluff)’ 게임으로 구분한다.²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강압외교는 일종의 허세이며,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6) 동맹딜레마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July 1984), pp. 466-468 참조.

27)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는 박홍서, “북핵위기사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6. pp. 102-122 참조.

28) Glenn H.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 46.

<그림 2> 중북간 응석받이 게임

		북한	
		협력	배반
중국	협력	I. 북중동맹의 안정적 유지	II. 북한 강압외교에 중국의 협력 (중미분쟁)
	배반	III. **현상황** 중국의 압력하 북, 강압외교 중단	IV. 북중동맹 균열 (북, 생존 위협)

* 중국의 선호순위: III> I> IV> II

** 북한의 선호순위: II> I> III> IV

그러나 이러한 게임의 구조를 ‘응석받이(spoiled child)’ 게임으로 부르는 것이 중북관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줄 수 있다. 북한이 강압외교를 반복한 사례를 추적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방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강압외교를 통해 중국의 분쟁 연루 수준을 증가시켜 자신에 대한 방기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전술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미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핵위기를 초래했던 사실, 2006년 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에서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그리고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규탄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직후인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사실 등은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자료에서 중국고위 관리가 북한을 “응석받이”로 묘사한 것은 이러한 중북간 게임의 구조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둘러싼 중북게임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압력(배반전략)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를 적절히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배반전략은 북중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 행동하게끔 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보상을 동반하는 ‘은밀한’ 형태의 압력을 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9) 「WikiLeaks: China weary of North Korea behaving like ‘spoiled child’」, 『CNN』, November 29, 2010
http://articles.cnn.com/2010-11-29/us/wikileaks.new.documents_1_kim-jong-il-separate-cable-chinese-officials?_s=PM:US

사실, 이러한 게임의 구조는 천안함 사건시 중국의 대응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당시 중국은 북한에 보다 협력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4월 20일 공식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科學、客觀的調查)”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4월 30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를 반복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³⁰⁾ 특히, 한중정상회담 직후 김정일의 전격적 방중과 북중우호관계의 재확인 등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중국의 대북전략이 배반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였다.³¹⁾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4월 17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천안함 사건을 한미 양국의 희망대로 처리한다면 북중관계의 불필요한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시 중국의 대응은 상술한 중북게임의 구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중국의 경제개혁요구를 무마시키려는 북한의 계산된 의도로 간주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중국으로서는 응석받이 게임의 전망대로 북한을 자제시켜야 합리적 동인이 생긴 것이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8-9일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방북은 주목할 만하다. 다이빙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결국 간접적 압력을 통해 북한의 자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³³⁾ 12월 20일 한국의 사격훈련에 대해 애초 “전면적 타격”을 공언했던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자제요구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4. 중한게임: 죄수의 딜레마의 상호배반?

중국의 대미관계가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구조를 갖는다면,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의 게임 역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중간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의 상호협력(파레토 최적)과 상호배반(내쉬균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우선, 1992

30) 「2010年4月20日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683586.htm>; 「한·중 정상회담/ 천안함 논의 ‘첫 단추’ 불구 확증 없으면 공조 불투명」, 『한국일보』, 2010. 5. 1. 3면.

31) 「김정일 訪中 이틀째/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 ‘中 김정일 방중수용 이해할 수 없는 일」, 『문화일보』, 2010. 5. 4. 4면.

32) 「중국을 시험하는 북한」, 『한국일보』, 2010. 11. 28.

33) 「朝鮮領導人金正日會見戴秉國」, 『人民日報』, 2010년12월10일; 「김정일-다이빙귀 면담/중 ‘방북 결과’ 토대로 미국과 조율할듯」, 『한겨레신문』, 2010. 12. 10. 6면. 2011년 6월 량광례 중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Defense minister says China’s military is 20 years behind the US, no threat to peace in Asia,” *Associated Press*, June 5, 2011.

년 8월 관계정상화 이후 한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상호협력적 양상을 보여 왔다. 한중 양국은 수교이후 2010년 6월까지 총 29차례의 정상회담을 기초로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2004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3대 교역국이 되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보였다. 군사분야에 있어서도 1999년 8월 조성태 국방장관이 방중한 이래 군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확대되었다.³⁴⁾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특성상 한중간에는 불신에 따른 상호배반적 상황 역시 상존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소위 ‘마늘분쟁’과 2004년 고구려사 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중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중 양국 모두 상호배반적 상황보다는 상호협력적 상황이 국가이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호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마늘분쟁은 한국이 향후 3년간 중국산 마늘을 의무적으로 수입한다는데 동의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양보로 볼 수 있으며, 고구려사 문제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해 향후 역사 왜곡을 하지 않을 것과 역사문제로 인한 한중우호관계의 손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이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⁵⁾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적 관계는 다각도로 이익일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과의 관계 발전은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주변환경 구축에 유리하다. 특히,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 및 자본을 한국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안보이익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중관계의 발전은 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잠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수교 이후 중국이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전략을 통해 한국의 ‘환심사기’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행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사 위엔화 절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 했다든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이러한 한중간 상호협력관계는 2008년 취임한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갈등적 상황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관영언론은 이미 이명박

34) 한중관계의 현황은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olitics/serv2-71-01.aspx?bm=2&sm=3&fm=1>

35) 『韓·中 “마늘분쟁” 타결』, 『한국일보』, 2000. 7. 7; 『韓·中 “고구려사 5개항 구두양해” 합의/“한국민 달래기” 역사전쟁 휴전』, 『한국일보』, 2004. 8. 25.

36) ‘매력공세’ 전략은 Joshua Kurlantzick,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35-36 참조. 중국의 대한국 접근전략은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pp. 308-309 참조.

정부의 취임이전부터 향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도중 발생한 중국유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라든지, 같은 해 5월 한중정상회담시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는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등은 이러한 중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상황은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한중관계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파레토최적(I. 상호협력)에서 내쉬균형(IV. 상호배반)으로 점차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한중간 죄수의 딜레마 게임

		한국	
		협력	배반
중국	협력	I. 한중관계 심화발전	II.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강경책; 중국의 순응
	배반	III. 중국의 영향력 강요 한미동맹 약화	IV. **현상황?* 한중갈등 심화; 중북 vs 한미

* 중국의 선호순위: III > I > IV > II
 ** 한국의 선호순위: II > I > IV > III

한중관계의 경색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보다 실재화 되었다. 중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4월 20일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시작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천안함 사건의 조사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5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방문을 둘러싸고 한중간 설전이 오가기도 하였다. 김정일 방중에 대해 한국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항의하자, 중국 외교부는 “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하였으며, 관영 언론은 한국의 행태를 ‘유치’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였다.³⁸⁾

37) 「韓國總統候選人李明博澄清“強韓抗華”的專聞」, 『人民網』, 2007年12月18日 <http://world.people.com.cn/GB/1029/42354/6667258.html>; 「2008年5月27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458969.htm>; 王林昌, 「倒向美國, 韓國將害了自己」, 『環球時報』, 2010年8月30日,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08/1055981.html>

38) 2010年5月6日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2010年5月6日, <http://www.fmprc.gov>.

5월 20일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소행으로 공식발표한 이후에도 한중간 갈등국면은 지속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조사발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 “시비곡직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관련 당사국의 자제를 요구하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였다.³⁹⁾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당초 중국측의 지지를 기대했던 한국의 희망과는 결코 부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중미게임에서 상술했듯이, 중국은 7월 유엔안보리 및 아세안 의장 성명에서 천안함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명기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은 7월 25-28일 진행된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보다 강력히 반발하였다. 관영언론은 한국이 과도하게 미국 의존전략에 기대고 있으며,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이용해 중국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⁴⁰⁾ 중국은 연평도 사건에 대한 한국군의 12월 말 대응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구하였다. 관영언론은 한국이 계속 “제멋대로 행동해(任性胡來)” 동북아 안정을 깨뜨린다면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중국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¹⁾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중국에 대한 배반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역시 비타협적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V. 결론

개혁개방기 중국의 국가목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한 ‘부민강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화평굴기’와 ‘유소작위’라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즉, 화평굴기 전략을 통해 안정적 대미관계를 비롯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유소작위’ 전략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라는 미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

cn/chn/pds/wjdt/fyrbt/t690286.htm: 「한-중 외교갈등/중, 내정간섭 정면대응...“한국 너무 유치” 맹비난」, 『한겨레신문』, 2010. 5. 7.

39) 2010년5월25日外交部發言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696833.htm>

40) 王林昌, 「專家稱韓國別妄想用“伙伴關係”套住中國」, 『環球時報』, 2010年7月29日. <http://mil.huanqiu.com/Exclusive/2010-07/974605.html>

41) 「社評：韓國別把懸崖當足球場」, 『環球時報』, 2010年12月23日. <http://opinion.huanqiu.com/roll/2010-12/1364341.html>

해서 안정적 북중관계를 견지하는 현실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미중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과 상호배반이 공존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미중관계가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반복게임이라는 현실은 현재의 미중관계를 상호협력적 상황(파레토 최적)에 보다 근접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대남북한 전략은 중미관계의 종속변인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정치가 여전히 '무정부적' 상태라면,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국제정치 현상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북관계는 '응석반이' 게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대미관계가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강압외교를 통해 북중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려 하고, 이에 중국은 보상을 동반한 '은밀한' 압력을 통해 북한을 자제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의 딜레마가 북중간 응석반이 게임을 초래하는 핵심적 동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한국 관계는 중미관계와 같이 죄수의 딜레마 구조를 갖는다. 특히, 한중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상호협력적 양상을 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후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상호배반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협력에 대해서는 협력으로, 배반에 대해서는 배반으로 대응하는 '티포택(tit-for-tat)' 전략이 최고의 효용을 가져온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전략을 대중국 견제라는 배반전략으로 인식한 이상 한국에 대해 협력적 전략을 구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향후 중미관계와 중북관계는 상술한 구조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록 중미간 갈등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합리적 동인이 없으며 미국 역시 그렇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강압외교를 통해 동맹국 중국으로부터 체제생존을 위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향후 한국의 대중전략에 따라 현재의 경색국면이 다시 상호협력적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중국으로서는 경제건설을 위해 평화적인 대외관계가 절실하며,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권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먼저' 배반전략을 구사해야할 합리적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곧 중국의 '피포위' 의식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문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차출에 관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리고 북한급변사태 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2005
- 「김정일 訪中 이틀째」, 『문화일보』, 2010. 5. 4
- 「김정일-다이빙귀 면담」, 『한겨레신문』, 2010. 12. 10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서울: 한울, 1995
- 로버트 액설로드 지음,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이기적 개인의 티포택 전략』, 서울: 시스템아, 2009
- 마크 레너드 지음, 장영희 옮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서울: 돌베개, 2011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미(美) 국방·경제·교육 등 7개부문 1위 중(中) 정치·문화력 1위… 러, 12위 추락」, 『조선일보』, 2009. 8. 15
- 「미중 전략경제대화 종료 ‘한반도 안정 유지’ 의견 일치」, 『프레시안』, 2010. 5. 26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2006
- _____,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동맹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 변화를 주요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 _____,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 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3호, 2007
- _____,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동맹전이 이론이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제 42집 1호, 2008
- _____, 「중국의 부상과 국제관계이론: ‘중국위협’에 관한 이론적 시각」, 김태호 편, 『중국외교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2008
- Z. 브레진스키 씀,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 「[아세안안보포럼]압박하는 한·미·일-반발하는 북·중 ‘신냉전 기류」 『경향신문』, 2010. 7. 24
- 「안보리 ‘북한’ 빠진 의장성명 채택」, 『경향신문』, 2010. 7. 10
- 원동욱, 「과학적 불확실성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008
- _____, 「중국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변화와 한중간 에너지 협력게임」,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이동률, 「중국의 강대국화 외교전략과 과제」, 『국방연구』, 제 53권 제 3호, 2010
- 정준표,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집 2호, 2003
-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nembassy.cn/contents/politics/serv2-71-01.aspx?bm=2&sm=3&fm=1>
- 「중국, 미국 보란듯이… 1달새 8번 군사훈련 공개」, 『한겨레신문』, 2010. 8. 5
- 「중국도 대규모 군사훈련」, 『서울신문』, 2010. 11. 30

- 「중국을 시험하는 북한」, 『한국일보』, 2010. 11. 28
- 톰 지그프리드 지음, 이정국 옮김,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 서울: 자음과 모음, 2010
- 「韓·中 “고구려사 5개항 구두양해” 합의/“한국민 달래기” 역사전쟁 휴전」, 『한국일보』, 2004. 8. 25
- 「韓-中 ‘마늘분쟁’ 타결」, 『한국일보』, 2000. 7. 7
- 「한-중 외교갈등/중, 내정간섭 정면대응...“한국 너무 유치” 맹비난」, 『한겨레신문』, 2010. 5. 7
- 「한·중 정상회담/ 천안함 논의 ‘첫 단추’ 불구 확증 없으면 공조 불투명」, 『한국일보』, 2010. 5. 1
- 「2008년5월27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458969.htm>
- 「2010年4月20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683586.htm>
- 「2010年5月6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690286.htm>
- 「2010年5月25日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696833.htm>
- 「2010年7月8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中國外交部,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714888.htm>
- 「朝鮮领导人金正日会见戴秉国」, 『人民日報』, 2010. 12. 10
- 「第二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在北京举行」, 『人民日報』, 2010. 5. 26
- 「韓國總統候選人李明博澄清“強韓抗華”的專聞」, 『人民網』, 2007. 12. 18,
<http://world.people.com.cn/GB/1029/42354/6667258.html>
- 李希光, 「朝鮮是中国一级核心利益」, 『環球時報』, 2010. 11. 30
- 「社评: 韩国别把悬崖当足球场」, 『環球時報』, 2010. 12. 23
- 「外交部发言人洪磊答记者问」, 中國外交部, 2010. 11. 26,
<http://www.fmprc.gov.cn/chn/pds/wjdt/fyrbt/t772435.htm>
- 王林昌, 「倒向美国, 韩国将害了自己」, 『環球時報』, 2010. 8. 30
- , 「专家称韩国别妄想用“伙伴关系”套住中国」, 『環球時報』, 2010. 7. 29
- 阎学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 「杨洁篪阐述中方在当前朝鲜半岛局势问题上的立场」, 『人民日報』, 2010. 11. 27
- 「中国策2010之外交篇: 中国可以有更多国际担当, 大公报: 中国外交有所作为迈出实质步伐」,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hb/news/2009/02-16/1564176.shtml>
- 「中华人民共和国与美利坚合众国联合声明」, 中国外交部, 2011. 1. 19,
<http://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788163.htm>
- 「专家: 应对美韩军演 切忌随他人步伐起舞」, 『環球時報』, 2010. 8. 18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oldstein, Avery, 『Rising to the Challenge: China's grand strateg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 Harlan, Chico, 「S. Korean president faces conflicting pressures as he toughens N. Korea response」,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8, 2010
- Hargreaves Heap, Shaun P. and Yanis Varoufakis, 『Game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5
- Kegley Jr., Charles W.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Trend & Transformation』, 9th edition, Wadsworth/Thomson, 2004
- Kurlantzick, Joshua, 『Charm offensive: How China's Soft Power is Transforming the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Langlois, Catherine C. and Jean-Pierre P. Langlois,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Game-Theoretic and Empirical Study of the U.S. -China Case」, 『World Politics』, Vol. 48, No. 3, April, 1996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July, 1984
- Snyder, Glenn H.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 Bargaining, Decision Making, and System Structure in International Cri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U.S. says China sees North Korean shelling as 'undesirable」, 『Reuters』, Nov 23, 2010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
- 「WikiLeaks: China weary of North Korea behaving like 'spoiled child」, 『CNN』, November 29, 2010
- 「Yellow book ranks China 7th in overall strength」, 『China daily』, December 25, 2009, http://www.chinadaily.com.cn/world/2009-12/25/content_9228213.htm
-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2005
- Zoellick, Robert B.,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 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Abstract〉

A Game-Theoretic Explanation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Cases of
Cheonan Ship Sinking and Yeonpyeong Island Attack

Park, Hong-Seo

The article attempts to analyze China's Korea policy through a game theory. A game-theoretic explanation assumes that China is a rational actor; China behaves rationally to achieve its national goals, whatever is, by calculating the cost and benefit of its moves. Currently, China's top national goal is "a wealthy people and a powerful country." To meet this, China keeps relatively contrasting grand strategies; one is a strategy of peaceful rise(heping jueqi) and the other is a strategy of "do things to be done(yousuo zuowei)." China's bilateral relations with stat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results from the logic of these two grand strategies. Chin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as a payoff of the *prisoner's dilemma* game. For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takes a cooperative strategy toward the US. By contrast, China attempts to discourage America's China bashing by supporting its ally North Korea. Chin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an be called a *spoiled child* game. Given North Korea's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has no other choices but to appease North Korea with massive assistance, politically or economically. China's relations with South Korea is same as its relations with the US, the *prisoner's dilemma*, but the difference is the current China-US relations is in the Pareto optimality(mutual cooperation) and China-South Korea relations is getting into the Nash equilibrium(mutual defection). To dissolve recent tension of the relations with China surrounding the Cheonan Ship Sinking and Yeonpyeong Island Attack, South Korea needs to reconsider its excessive pro-American diplomacy which might estrange China.

Key Words: China's foreign policy, Game theory, China-US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China-South Korea relations, Prisoner's dilemma

투 고 일 : 2011. 6. 10

심 사 일 : 2011. 6. 30 ~ 2011. 7. 10

게재확정일 : 2011. 7. 20